

요한 1 서 묵상 14  
(9/4/2020, 금)

찬양: 295(417)(큰 죄에 빠진 나를)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요한 1 서 3:13-16

말씀에 대한 이해

사도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지만, 성도는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사도요한은 13 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을 향해 “아이들아”, 혹은 “자녀들아”라고 불렀던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들아”라고 부른 것이 인상적입니다. 요한은 자신과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요한은 13 절 말씀을 통해서, 당시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박해의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으라는 메시지는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벧전 4:12)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핍박할 수 있고, 어쩌면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더라도, 그러한 세상을 향한 사랑을 거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14 절 -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국문 번역은 마치 사랑을 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랑 실천이 생명을 얻은 원인이 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원문을 직역하면,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연히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즉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징표가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다.

요한은 이 부분을 15 절에서 추가적으로 증거합니다. 15 절 -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은 미워하는 자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고 그러한 사람 속에는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자연히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씀을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마 5:21-22 - 21.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바보, 멍청이)라고 하며 욕하는 사람도 살인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인의 행위가 아니라 살인의 마음, 그리고 그 살인의 마음 중심에 있는 미움에 초점을 두신 것입니다. 미움의 마음은 살인의 마음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으며, 미움의 마음이 제어가 안되고 커질 때 살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에 근거하여,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핍박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말며 사랑의 실천을 멈추어서는 안됨을 말씀하십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완악해지고 사랑을 잃을 수 있음을 늘 조심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성도의 성도됨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 실천의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16 절 -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원수라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앞서서도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언급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랑을 받았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목숨을 버릴 각오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와 상황, 그리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도 사랑을 멈출 수 없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면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역시 그 사랑으로 많은 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벧전 4:8 -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가지 환난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성도의 구원을 증거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삶에서 사랑이 부족할 때, 사랑의 마음이 식어질 때,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속에 젖어들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오늘도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새로운 삶의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2.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3. 혼란스러운 미국 사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참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